

[지역문화회관 성공경영]해답을 찾아(상)

건립만 하면 끝? 이제부터 시작이다

입력날짜 : 2009. 03.17. 00:00:00



▲2003년 개관한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은 공연기획 전문가를 공개 채용해 문화공간의 전문성을 높이는 등 다른 지역 문화회관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이현숙기자

세계유명음악가 연주회 유치로 명성얻고 지역민과 밀착된 프로그램으로 사랑받아

○... 문화산업의 성장 이면에는 공연장의 성공이 있다. '공연장의 성공경영학'인 셈이다. 전국적으로 문화예술회관을 표방한 '공공 공연장'이 지어지고 있거나 완공돼 개관을 앞두고 있다. 현재 건립된 곳만 해도 160여곳, 진행중인 곳까지 포함하면 260~300여곳에 이른다. 도내에서도 한라문화예술회관(내년 상반기 개관)이 건립 중이고 서귀포종합문화회관(2011년 개관 예정)이 실시설계 용역 중이다.

지어놓기만 하면 문화예술을 견인할 수 있는 거점이 될 수 있을까. 사실상 문화회관의 방향성과 운영에 대한 고민은 부족해 보인다. 기사는 한국언론재단에서 시행한 '지역문화회관의 운영방안과 성공경영학'연수에 참가해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의정부예술의전당, 고양아람누리·어울림누리, 충무아트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등 전국에서 성공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지역문화회관을 돌아봤다. 차별화된 운영 전략과 기획 공연으로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 곳을 세차례에 걸쳐 살펴보고자 한다. ...○

#기획력 특출한 전문가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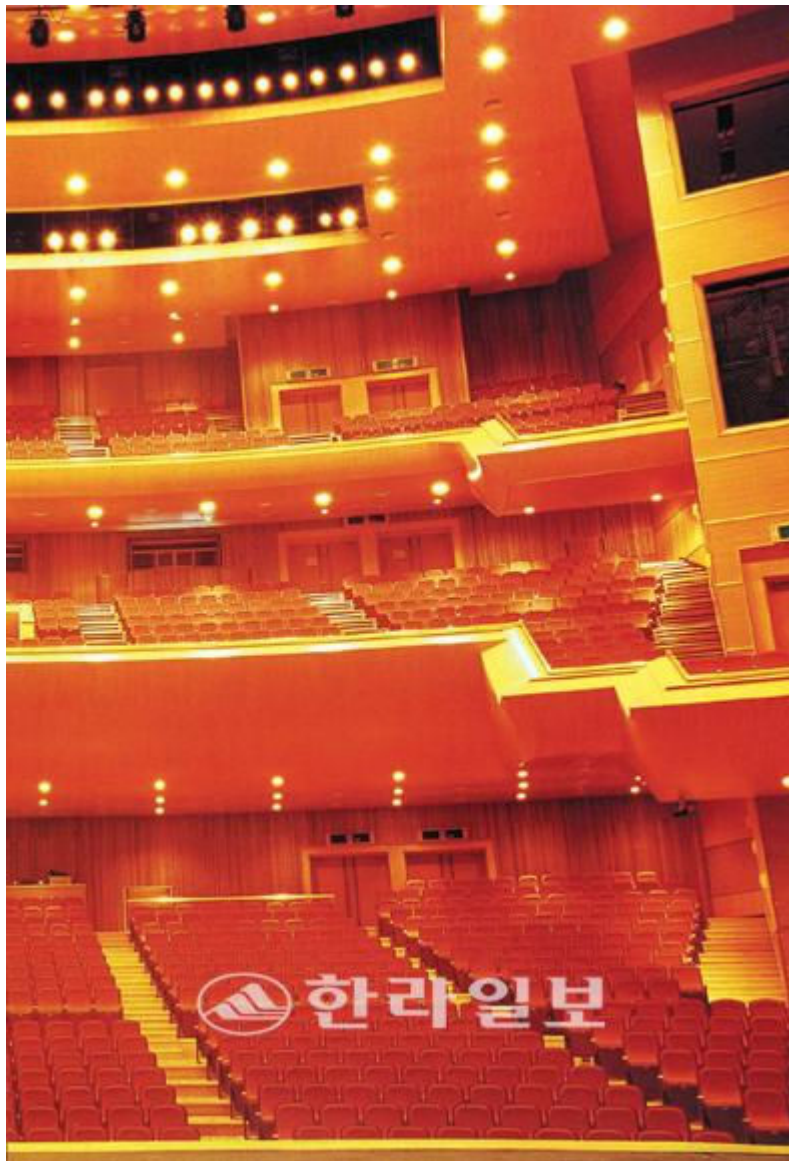
2003년 10월 개관한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이하 대전예당)의 공연 프로그래밍 전략과 운영 사례가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전시는 대전예당 관장을 공연기획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모했다. 공모를 통해 김용환 관장이 2대 관장이 됐고 전문성을 인정하면서 지원은 전폭적으로 하되 간섭은 하지않는 원칙을 지켜가고 있다. 공연기획과 28명도 모두 전문가 그룹이다. 이로써 대전예당이 기획연주가 가장 활발히 진행되는 공연장으로 자리잡게 한 셈이다. 대전예당은 올해 193회의 기획공연을 준비중이다.

1540여석 아트홀과 650여석 앙상블홀, 연회장인 컨벤션홀, 야외원형극장까지 갖춘 대규모 대전예당은 품격있는 공연장, 시민 속의 공연장, 철학이 있는 공연장을 표방하고 있다. 가장 먼저 윈헌첼버오케스트라, 유러피안 재즈트리오 등 세계 최고 공연을 유치해 고급 브랜드 이미지를 확고히 했다. 또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연극·무용 중심 '스프링페스티벌' 국제 규모 음악축제인 '대전뮤직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미국 링컨센터, 일본 산트리홀 처럼 교육을 통해 문화예술 인구 저변을 확대한 것이다. 영재아카데미 프로그램, 문화예술아카데미 운영을 활성화했고, '놀토'에 오갈 곳 없는 초등학생들을 위해 '오픈 하우스 & 스쿨 뮤직 콘서트'를 통해 '대박'을 터뜨렸다. 지역 문예회관 중 국내 최초 상주 예술단체 제도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를 도입하기도 했다. 지역 예술인들에게 연주 기회를 제공하고 실내악 붐 확산에 기여한 대전체임버뮤직소사이어티를 운영하고 있다.

#시민 대상의 연극교육 관심

지난 2004년 10월 개관한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이하 안산예당)은 개관당시 규모면에서 전국 10위권으로 인구 73만명에 불과한 도시와 재정 규모에 비해 운영상의 어려움이 예상됐다. 이에 따라 개관측 운영의 공공성과 경영성과, 합리적 운영을 미션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특성화 우수사례로 꼽히는 것은 '연극 특성화 상록수 프로젝트'. 안산시민의 잠든 감성을 깨우기 위해 안산예당은 '연극가족 1000명 운동'을 펼치는 등 연극을 통한 다양한 콘텐츠를 구축하고 있다.



▲안산예술의전당 대극장 '해돋이극장' 내부.

안산예당은 법인으로 출범한지 1년만에 눈에 띄는 운영실적을 보이며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유료객석 점유율이 70%를 넘어섰고 소외계층을 위한 5%객석나눔운동을 벌여 호평을 받는 등 공립극장 운영의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경영의 효율화와 공공서비스 실현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은 셈이다.

공업도시의 회색 이미지를 벗기 위한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이 내건 것은 다름 아닌 연극 교육이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고, 공동작업을 통해 이뤄지는 연극 교육인 '상록수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들의 잠든 감성을 깨우고 있다. 연극반 교사 및 예술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부연극동아리인 '유혹', 성인연극동아리인 '우리', 청소년연극동아리인 '상록수 YT' 등을 만들어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꾸려지고 있다. 고려시대 안산의 문화유산인 별망성을 소재로 몽고항쟁의 숨겨진 역사를 대형뮤지컬로 꾸민 '꼭두별초'를 제작해 19회 연속 매진을 기록하기도 했다.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김용환 관장 "지원은 하되 간섭없는 운영 필요"



"문예회관 등 공공 공연장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운영방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김용환 관장(사진)은 '성공경영 비법'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강조했다. 김 관장은 지난 2007년 11월부터 공모를 통해 관장직을 맡고 있으며 다양한 특화사업을 운영하면서 우수 예술경영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그는 "개관때부터 표방한 '초대권 없는 공연장'원칙을 통해 안정적인 유료관객을 확보하고 '까칠한'대관심사를 통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작품을 무대에 올려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예회관을 건립하는 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현숙 기자 hslee@hallailbo.co.kr

[이현숙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allailbo.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hallailbo.co.kr